- 공익광고 -

『 안전문화확산운동 』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전은 죽고사는 문제이다

안녕하십니까? 를
안전하십니까? 로

주최 / 주관 :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

기적의 시화호, 기회의 바이오

바이오 국가대표 시흥, 새로운 미래를 열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

‘국민이 다 안전할 때까지’ 실천하는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전은 죽고사는 문제이다.”

이 문장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가장 근본적인 현실 인식이다. 소득과 성장, 효율을 논하기에 앞서 한 사람의 생명과 일상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안전은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자, ‘삶의 질’을 완성하는 출발점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위에서 출범한 단체가 바로 국민다안전교육협회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국민다안전교육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안전을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고 이전의 예방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국민의 일상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 협회의 존재 이유다.

국가가 인정한 안전교육 전문기관

국민다안전교육협회는 민간 교육단체의 범주를 넘어 국가가 그 전문성과 공공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안전교육 전문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지정기관, 행정안전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지정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기부금단체로도 등록돼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지정한 ‘7대 안전 연수기관’으로서 학교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협회의 교육 활동이 단순 캠페인이나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국가 안전정책과 공교육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 속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의 완성은 ‘생활화’

협회가 가장 강조하는 핵심 개념은 ‘안전의 생활화’다. 안전은 규정과 매뉴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안전의식이 몸에 배고, 습관이 되며, 일상의 선택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사고는 줄어든다. 이를 위해 협회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다안’은 국민다안전교육협회의 약어이자 “국민 모두가 다 안전하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동시에 생활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보건안전, 범죄안전, 교통안전, 수상안전 등 7대 안전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안전문화 교육기관이 되겠다는 비전을









내포하고 있다. 이름 자체가 곧 목표이자 방향성이다.

현장에서 검증된 전문 인력과 맞춤형 교육

국민다안전교육협회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다. 실무경력 12년 이상의 안전전문 위촉강사 641명(2025년 11월 기준)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며, 유아부터 초·중·고·대학생, 교직원, 기업·공공기관, 복지단체와 일반단체에 이르기까지 대상별·상황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론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실습과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 방식은 협회가 '사고 예방 중심 교육기관'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전문성이 교육의 신뢰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을 넘어 정책으로

국민다안전교육협회는 교육에 머무르지 않는다. 부설 안전정책연구소를 통해 안전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행정기관에 정책을 제안하며, 안전 관련 연구용역과 조달청 발주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이 다시 제도와 정책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안전을 가르치는 기관이자, 안전 사회를 설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최헌규 중앙회장은 협회를 "'인류 안전'이라는 아젠다 아래 모인 가치 있는 상생의 게마인샤프트, '다안공동체'"라고 설명한다. 그는 "국민다안전교육협회는 세계 안전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안전을 중심 가치로 한 공동체적 연대를 실천하는 단체"라고 강조한다. 개인의 안전을 넘어 사회 전체, 더 나아가 인류 공동의 안전을 지향하는 비전이 협회의 활동 전반에 녹아 있다는 설명이다.

"checking your safety!"

이 문장은 국민다안전교육협회의 슬로건이자 약속이다. 협회의 모든 임직원은 안전을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안전을 점검하고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은 눈에 띄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증명된다. 사고가 없었던 하루, 무사히 돌아온 저녁,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국민다안전교육협회는 그 '당연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안전을 가르치고, 점검하고, 실천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향한 이들의 걸음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의정저널 이승재 기자]









